



의정부주보

• 발행인 손희송 • 편집 홍보국 • 주소 11674 경기도 의정부시 신흥로 261 의정부교구청 • 전화 031-850-1400(대표), 1433~5(홍보국)

124위 복자

복자 강경복 수산나
(1762-1801)



강경복은 1762년 양인 집안에서 태어나 궁녀가 되었고 순교할 때까지 동정으로 살았다. 1798년 무렵, 집 주인이던 송 마리아가 천주교로 인도한 덕에 주문모 야고보 신부에게서 세례를 받을 수 있었다.

1801년 2월 신유박해가 일어났을 때, 강경복은 주문모 신부의 피신을 도왔으나 자신은 체포되었다. 그는 상급 재판소인 의금부로 이송되었는데, 그곳에서 혹독한 문초와 형벌로 정신이 훈미해진 나머지 “다시는 천주교를 믿지 않겠습니다.”라고 진술하고 말았다. 그러나 곧 크게 뉘우치고는 다시 한번 신앙을 증언하였다. 박해자들이 주문모 신부를 밀고하길 강요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그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신앙을 고백하였다. “저는 천주교에 깊이 빠져서 이를 올바른 도리라고 생각하였으며, 양제궁에 거처하면서 주문모 신부를 찾아가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후 천주교 신앙을 믿는 마음이 갈수록 굳어져 왔으니, 형벌을 당해 죽는다고 할지라도 조금도 신앙을 버릴 생각이 없습니다.”

마침내 그는 강완숙을 비롯한 동료들과 함께 사형 판결을 받고, 1801년 7월 2일에 참수형을 받아 순교하였다. 당시 그의 나이 39세였다.

성화_김형주 作, 「복자 윤지충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 123위, 하느님의 종 가경자 최양업 토마스 신부」

©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25

○

라테라노 대성전 봉헌 축일 · 평신도 주일

소리 주보 ▶



입당송

묵시 21,2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처럼 차리고 하늘로부터 하느님에게서 내려오는 것을 나는 보았네.

제1독서

예제 47,1-2.8-9.12

화답송

시편 46(45),2-3.5-6.8-9(◎ 5)

◎ 강물이 줄기줄기 하느님의 도성을, 지극히 높으신 분의 거룩한 거처를 즐겁게 하네.

○ 하느님은 우리의 피신처, 우리의 힘. 어려울 때마다 늘 도와주셨네.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네. 땅이 뒤흔들린다 해도, 산들이 바다 깊이 빠진다 해도. ◎

○ 강물이 줄기줄기 하느님의 도성을, 지극히 높으신 분의 거룩한 거처를 즐겁게 하네. 하느님이 그 안에 계시니 흔들리지 않네. 하느님이 동틀녘에 구해주시네. ◎

○ 만군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네. 야곱의 하느님이 우리의 산성이시네. 와서 보아라, 주님의 업적을, 이 세상에 이루신 놀라운 일을! ◎

제2독서

1코린 3,9-11.16-17

복음 환호송

2역대 7,16 참조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내가 이 집을 선택하여 성별하고 이 곳에 내 이름을 영원히 있게 하리라. ◎

복음

요한 2,13-22

영성체송

1베드 2,5 참조

너희는 영적인 집을 짓는 살아 있는 돌이니, 거룩한 사제단이 되어라.

기흔 샘과 실로암



기흔 샘에서 실로암으로 흐르는 수로

예루살렘의 구도시(old city)에 가면 ‘기흔 샘’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마르지 않은 이 샘 덕분에, 예루살렘은 광야를 낀 건조한 기후에도 유구한 역사를 이어올 수 있었습니다. 이런 중요성을 반영하듯 솔로몬은 기흔 샘에서 기름부음을 받아 왕위에 올랐고(1열왕 1,45), 이후 샘 위로 자리한 산 정상에 성전을 봉헌하였습니다. 지금은 그곳에 회교사원이 지어져 있지만, 한때는 에덴 동산의 축소판이라 할 수 있는 성지였습니다.

원조들이 살았던 동산 “에덴”은 ‘풍요’ ‘즐거움’ ‘기쁨’을 뜻합니다(시편 36,9: “당신께서는 그들에게 당신 기쁨[아다네하]의 강물을 마시게 하십니다” 참조). 이 뜻처럼 에덴동산은 ‘파라다이스’라 칭해지는데요, 파라다이는 페르시아어 [파이리다에자]에서 나온 말로 ‘과일나무 정원’ ‘울타리가 쳐진 공원’을 의미합니다. 이 페르시아어가 에덴동산과 관련하여 최초로 쓰인 곳은 그리스어 번역 성경인 <칠십인역>입니다. 거기서 에덴동산을 그리스어 [파라데이소스]로 옮겼는데(창세 2,8.16 등), 이는 에덴에 과일나무 정원이 있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에덴동산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간-에덴]도 ‘에덴 정원’으로 직역되므로 ‘파이리다에자’와 상통하며, 울타리가 쳐진 점도 닮았습니다. 원조들이 에덴에서 쫓겨난 뒤로 에덴 입구는 커瞽이 불 칼을 들고 지키게 되었지요(3,24). ‘파라데이소스’는 이후 라틴어 번역 성경 <불가타>에서 라틴어 [파라디수스]로 옮겨져 우리에게 파

라다이스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에덴에는 무화과, 선악과, 생명나무 등이 자랐고, 예제 31,8에 따르면 향백나무, 방백나무(사이프러스), 벼름나무(플라타너스 종류)도 있었습니다. 또한 창세 2,5-6에 따르면, 에덴에는 비가 내리지 않고 땅 밑에서 올라오는 안개 같은 물이 지면을 적셔주었습니다. 이 물이 네 강줄기가 되어 흘러나갔으니, 에덴 동산은 가히 생명수의 원천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넷 가운데 “기흔”(13절)이라는 강이 상징적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샘의 이름과 같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창세기의 저자는 잊어버린 에덴동산을 기흔 샘 위로 지어진 예루살렘 성전에서 찾을 수 있다고 암시한 듯합니다. 오늘 제1독서의 애제키엘도 비슷한 신탁을 전합니다. 새 성전에서 흘러나올 생명수가 가는 곳마다 생기를 넣어주어, 에덴동산에서처럼 온갖 과일나무들이 자라게 되리라고 말입니다. 바로 이 예언은 훗날 몸소 성전이 되시는 예수님에게서 실현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나를 믿는 사람은 그 속에서부터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올 것”(요한 7,38)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더구나 기흔 샘은 기원전 8세기 유다 임금 히즈키야가 터널을 뚫어 실로암 못과 연결되었는데, 예수님께서 태생 소경을 보내 고쳐 주신 곳이 실로암이니(요한 9,1-12), 그 소경은 에덴의 생명수에 힘입어 새 삶을 되찾은 샘입니다. ☽



주교단과 개별 주교들

「교회현장」 제23항

「교회현장」 제23항은 ‘개별 주교들(singuli Episcopi)이 개별 교회들(Ecclesiae particulares)과 보편 교회(Ecclesia universalis)에 대해 맺는 관계’를 설명합니다. 교황은 주교들의 일치와 신자 전체의 일치에 대한 영구적이고 가시적인 근원이며 토대입니다. 교황과 보편 교회의 이러한 관계에 맞추어, 개별 주교들은 그들의 개별 교회 안에서 일치의 가시적인 근원이며 토대가 됩니다. 이어서 공의회는 이 개별 교회가 보편 교회의 모습대로 이루어졌으며, 이 개별 교회 안에 또 개별 교회에서부터 “유일하고 단일한 가톨릭교회가 존재”한다고 말합니다. 개별 교회가 보편 교회의 모습을 지니고, 보편 교회는 개별 교회 안에 또 개별 교회로부터 존재한다는 이 상호성에 대한 언급은 보편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개별 교회에서도 교회의 본질이 드러나야 한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따라서 개별 주교들이 자신의 교회를 대표하고, 모든 주교와 교황이 온 교회를 대표한다는 이어지는 언급 역시 개별 주교들이 교회의 본질을 구현할 때 성립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단락은 개별 주교들의 개별 교회들과 보편 교회에 대한 권한과 의무에 관해서 언급합니다. 개별 교회들의 유품인 개별 주교들은 자신에게 맡겨진 교회에 대해서 “사목 통치(regimen pastorale)”를 합니다. 그러나 개별 주교들은 주교단의 일원이며 사도들의 후계자로서 보편 교회에 대해서 재치권은 아니지만 “관심(sollicitudo, 염려, 배려)”을 기울임으로써 많은 이득을 줍니다. 모든 주교는 교회 전체의 공통 규율과 신앙을 수호해야 하고, 그리스도의 신비체 전체를 사랑하도록 신자들을 이끌어야 합니다. 모든 주교는 교회의 모든 공동 활동을 촉진하고 신앙이 모든 사람에게 전파되

도록 해야 하며, 자신의 교회를 잘 다스리는 것이 보편 교회의 선익에 기여함을 명심해야 합니다.

공의회는 이어서 그리스도의 명령으로 주교단에 주어진, 세상에 복음을 선포하는 사목적 “배려(cura, 목자의 사명)”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개별 주교들은 서로 공동으로 활동하고,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임무가 특별한 방법으로 맡겨진 교황과 협력하여야 합니다. 주교들은 선교 지역에 선교사들을 보내어 영신적이고 물질적인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하고, 사랑의 보편적 유대 안에서 이웃의 가난한 교회에 형제적 원조를 제공해야 합니다.



개별 주교는 개별 교회와 보편 교회뿐만 아니라 주교회의를 통해서 합의체적으로 활동한다.

주교회의 2025년 추계 정기총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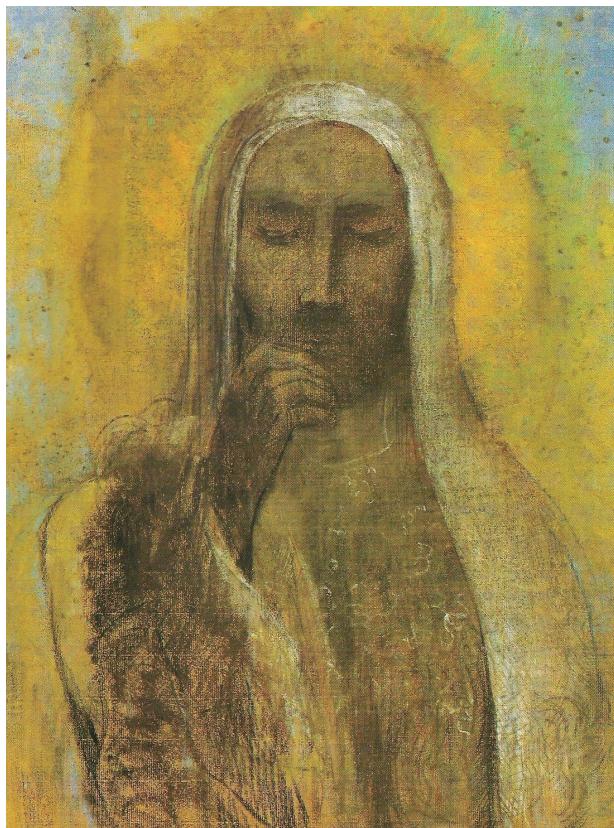
마지막 단락은 지역 교회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하느님의 섭리로, 사도들과 후계자들이 세운 교회들은 역사 안에서 여러 집단을 이루고, 보편 교회의 단일성과 신앙의 일치를 보존하며, 고유한 규율과 전례와 신학적 영성적 자산을 이루었습니다. 특히 총대주교좌 교회들(동방 가톨릭교회들)은 성사 생활과 상호 존중과 의무에서 사랑의 유대로 결합하고 있고, 그러한 지역 교회들의 다양성이 교회의 보편성을 증거한다고 말합니다. 끝으로, 공의회는 주교단의 단체성과 관련하여 주교회의들의 활동에서 드러나는 합의체적 정신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

침묵의 그리스도

현대인들은 탐욕과 이기심, 시기와 질투, 증오와 분노 같은 내면의 온갖 ‘소음’에 시달리곤 합니다. 어쩌면 하느님을 드러내는 데에만 정성을 쏟던 중세와 완전히 다른 시대를 사는 존재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느님은 커녕 개인이 두드러지는 데 급급한 세상이니 그럴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자아성찰, 묵상, 평화, 침묵의 가치가 더욱 부각되는 오늘날입니다.

이 작품이 그려진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는 새로운 표현을 찾는 대격동의 시대였습니다. 격정적인 감정 표현의 낭만주의, 자연으로 회귀를 외치는 자연주의, 빛에서 답을 찾은 인상주의 등 다양하고 흥미로운 시도가 있었지요. 문학적이고 사색적인 경향의 ‘상징주의’(Symbolism)도 이때 등장합니다. 이 그림의 작가는, 의미를 명확하게 드러내지 않으며 마치 베일에 싸인 듯한 표현이 깊은 매력을 발산하는 상징주의자 오딜롱 르동(Odilon Redon, 1840~1916)입니다.

여기 깊고 고요한 신비의 공간으로 이끄는 그림이 있습니다. 길고 곧은 코에 두 눈을 감고 입을 굳게 다문 남성이 오른손을 턱 밑에 대고 골똘히 깊은 생각에 잠겨있습니다. 고대의 현자가 연상되는 이 인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양쪽으로 길게 늘어뜨린 머리 혹은 흰색 베일은 초월적 순수함으로 눈부십니다. 그리스도에게서 뿐어 나오는 강렬한 노란 빛은 그 놀라운 생명력으로 세상을 밝게 물들입니다. 온 우주의 에너지를 자신에게 끌어들여 내면으로 집중시키는 놀라운 힘을 가지신 예수님입니다. 그분은 자신에게 집중하며 관조합니다. 성스러운 얼굴 주위로 빛나는 후광은 바로 그분이 이 세상을 사랑과 은총의 빛으로 밝혀주는 빛의 근원임을 드러냅니다. 그로부터 번지는 은은하면서 강렬한 빛은, 갑자기 불어오는 바람이나 거센 파도에 침몰하는 일시적이고 불안한 빛이 아니라 ‘영원불멸의 빛’ 바로 ‘생명의 빛’입니다. 화면 상단 모서리에 어렴풋이 남은 푸른 공간은 배경이 원래 푸른



오딜롱 르동, 〈침묵의 그리스도〉, 1890~1907년, 종이에 목판과 파스텔, 58×46cm, 파리 뿐띠팔레 미술관(프랑스)

빛이었음을 보여줍니다.

프랑스 화가 르동은 신화와 성경에서 비롯한 주제들로 신비로운 세계를 펼쳐냅니다. ‘보이는 실재’가 아니라 ‘느껴진 실재’를 화폭에 담으려 한 르동은 당시 보편적인 회화 기법인 유화 대신 파스텔을 선택했습니다. 종이에 스며들고 뭉개지는 번짐 효과로 더욱 부드럽고 신비로운 효과를 추구한 까닭입니다. 그는 고백합니다. “나의 드로잉은 영감을 줄 뿐 명확히 규정되기를 바라지 않는다. 마치 음악과 같이 미지의 신비로운 곳으로 인도하길 바란다.”

그 누구도 하느님의 모습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역사 속 수많은 예술가도 천상의 영감을 받아 각양각색의 모습으로 하느님을 형상화하며 그 신비에 다가가려 고군분투할 뿐이었습니다. 우리 역시 그저 그 빛을 동경하고 상상하며 그리워할 뿐입니다. 침묵 속 그분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찰나 드러내 주실 황홀한 신비를 은근히 기대하면서 말입니다. ●



**교
구
소
식**

2026년 신양교육원 18기 신입생 모집

의정부분원	오후반	화·목	14시~16:10	신양교육원	정규과정 2년제 4학기 한 학기 4과목 12주간 수업
남양주분원	저녁반	수·금	19:30~21:40	지금동 성당	

과목 신·구약 성경과 가톨릭교회의 교리

접수 각 100명 선착순 모집 (예약금 5만원)

회비 학기당 40만원 (분납 가능)

문의 031-850-1545, 010-5578-4898

※ 홈페이지 sd.uca.or.kr/set 참조

한마음 사계 피정 – 12월 (대침묵 피정)

주제 성경으로 배우는 하느님의 일

일시 12/5(금) 16시 ~ 7(주일) 13시

장소 한마음청소년수련원 피정동

강사 김효준 레오 신부

회비 1인 20만원 (1인 1실)

문의 031-850-1449 선교사목국

신청 ►



중등부, 고등부 1~2학년 예비신학생 모임

일시 11/16(주일) 10시

장소 혜화동 대신학교

백석농아선교회 수어미사

일시 11/23(주일) 16시

장소 백석동 성당 지하1층 소강당

주례 김종민 F. 하비에르 신부

문의 010-2093-4519 백루시아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 의정부교구대회 발대식 및 발대미사

일시 11/23(주일) 12시~18시

제1부 희년 음악회 / 제2부 WYD 발대식 / 제3부 WYD 발대미사

장소 주교좌 의정부 성당

대상 의정부교구 모든 청소년과 청년

의정부교구청 미화 직원 모집

인원 1명

마감 채용시까지

서류 이력서, 교적사본

근무 08시~12시 (주 5일 20시간 / 시간 자유선택 가능)

우편접수처 및 근무처 경기도 의정부시 신흥로 261(의정부동) 3층 관리국 (근무처 : 교구청사)

문의 031-850-1426 의정부교구청 관리국



기억합니다.

11월 9일은 故 김도연 야곱 신부의
9주기입니다.





교구 청년 11월 프로그램

노틀담 수녀회와 함께하는 <대림 피정>

일시: 11/29(토) 19시

장소: 청년센터 에피파니아

주제: "별을 따라 걸어가는 희망의 순례길"

신청: 청소년사목국 등록시스템

<https://people.uca.or.kr>

문의: 청소년사목국 카카오채널

낙태 후 화해 피정 - 착한목자수녀회

날짜: 11/21(금)~23(주일), 12/5(금)~7(주일) [2박3일]

장소: 성 안드레아 피정의집 (인천) / 회비 없음

문의: 010-6637-1366 변 바울라 수녀

의정부교구 성령쇄신 금요밤 기도회

일시: 11/14(금) 21시~24:30

장소: 마두동 성당 대성전

강사: 의정부교구 말씀 봉사자 (상담 봉사자 축복기도)

주제: 찬양과 치유 기도회

문의: 010-2127-0032

제주 성 이시돌 자연순례 피정

성 이시돌 목장 내 성지에서 쉼과 성지순례

제주여행과 자연순례 (2026년 피정 접수중)

대상: 개인, 가족, 본당구반장, 소규모 모임

성지순례(추자도포함): 12/1(월)~3(수)

자연순례: 12/5(금)~7(주일), 12/13(토)~15(월),

12/19(금)~21(주일)

연말연시: 12/31(수)~1/3(토) [한라산]

문의: 064-796-4182, 02-773-1455

제주 산들평화순례 피정 - 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

제주 성지와 푸른 숲과 바다 그리고 올레길 순례

제주순례: 12/6(토)~8(월), 12/12(금)~14(주일),

1/9(금)~11(주일), 1/23(금)~25(주일),

2/6(금)~8(주일), 2/27(금)~3/1(주일)

연말연시 피정(한라산·일몰·일출): 12/31(수)~1/3(토)

한라산 눈꽃 영실산행: 1/15(목)~18(주일),

1/30(금)~2/1(주일),

추자도 성지순례: 3/5(목)~8(주일), 3/12(목)~14(토)

문의: 064-732-4702 면형의 집

제2차 성령 안에서 치유회복 피정

날짜: 12/13(토)~14(주일) [1박2일]

장소: 아론의집 (의왕시)

강사: 김성대 안드레아 신부

주제: 너는 아느냐

회비: 12만원 (1박 3식)

문의: 010-6366-4022

성심수녀회 예수마음배움터 피정 및 교육

내안의 생명력 되찾기 피정: 11/15(토)~16(주일)

예수마음기도: 12/12(금)~14(주일)

영신수련: 12/12(토)~14(주일)

장소: 성심수녀회 예수마음배움터 (파주 운정)

문의: 010-9099-2337 예수마음배움터

www.jesumaum.org

2025 성령쇄신 전국 대피정

일시: 11/15(토) 09시~17:30

장소: 음성 꽃동네 사랑의 연수원

강사: 브리지 맥肯나 수녀 (말씀과 치유 은사자)

미사: 이병호 빙천시오 주교와

전국 교구 담당 및 협력 사제단

대상: 모든 교우

주관: 한국가톨릭성령쇄신봉사자협의회

문의: 02-777-3211

예수회 말씀의집 성 이냐시오 영신수련 피정

8일: 11/16(주일)~25(화), 12/10(수)~19(금)

단기: 12/1(월)~4(목) [3박4일]

문의: 031-254-8950 수원 말씀의집

故 차동엽 노르베르토 신부 선종 추모 미사

일시: 11/12(수) 14시

장소: 미래사목연구소 (김포시 고촌읍 신곡로 134)

문의: 031-986-7141

2025 한마음 수험생 가정을 위한 피정

일시: 11/13(목) 09:30~15시

장소: 한마음청소년수련원 본관

강사: 김경진 베드로 신부

대상: 수험생 자녀를 둔 모든 부모와 가족

회비: 1인 2만원 (점심식사 포함)

※ 피정비 4만원 중 2만원 청소년사목국 지원

준비물: 미사 준비, 묵주, 개인 컵이나 텀블러

문의: 031-840-0018 (내선 201)

특별초청 샹하이트위스트

일시: 11/19(수) 11시~16시 (점심 무료 제공)

장소: 갈현동 성당 (연신내역 7번 출구)

내용: 샹하이트위스트 찬양치유 피정, 미사

강사: 조남구 마르코 신부 (공도동 주임)

문의: 010-4444-1264

길음동 성령기도회 무료치유 영성강좌

11/12 황미란 로즈마리 수녀

11/26 장이태 경환프란치코 신부

11/19 김성기 안드레안 신부

12/3 김명심 안드레아 수녀

일시: 매주(수) 18시~20:40

장소: 길음동 성당 소성전

문의: 010-9248-8151

예수수도회 영성센터 프로그램

엄마와 딸(미훈) 피정: 11/22(토)~23(주일)

영신수련 9박10일피정: 1/14(수)~23(금)

장소: 서울 오류동 (1,7호선 온수역 10분)

문의: 010-6890-7223

구산 성지 신앙선조 영성 피정

망덕자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살리라

일시: 11/8(토) 14시~18시 / 장소: 구산성지

내용: 성경직해(신앙선조의 성경) 풀이, 미사

지도: 정종득 신부 / 성가: 고영민

회비: 1만원 / 문의: 031-792-8540



의정부교구 가톨릭국악합창단 단원 모집

연습: 매주(월) 19:30, 일산 성당

활동: 의정부교구 신년하례미사,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회 및 미사와 교구 행사

문의: 010-4661-4192 김 안젤라 단장

파주시장애인주간보호시설 도란도란 이용자 모집

대상: 만 18세 이상, 지적·자폐성 발달 장애인

(파주 관내 송영서비스 가능)

문의: 031-942-8000, cafe.naver.com/pjedoran

예수고난회 동반자회 8기 모집

자격: 세례받은 지 3년 이상된 남녀 신자

접수: 12/7(주일)까지

문의: 010-7553-4672 담당자

02-990-1004 우이동 명상의집

황사영순교순례지 사무장 모집

근무: 주 30시간 (수~주일)

서류: 이력서, 교적 (운전필수)

접수: 우편 (우체국 직인까지 유료)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가마골로 270

※ 제출하신 서류는 반납하지 않습니다.

가톨릭대학교 교회음악대학원 신입생 모집

석사과정(5학기): 오르간, 작곡(CCM 포함), 합창지휘

석사학위 및 가톨릭교회 인준의 고급 교회음악가

자격증 수여

접수: 12/8(월)~19(금)

전형: 1/9(금), 최양업홀 (총정로역, 서울역)

문의: 02-740-9704

<http://songsin.catholic.ac.kr/music>

원어 성경 기초반 – 히브리어, 그리스어: zoom

일시: 1월~12월, 매주(수) 19:30~21:30

회비: 30만원 x 4회 (총 120만원)

문의: 010-4598-6912 김성태 신부 (작은형제회)

2026 가톨릭교리신학원 통신(우편) 신학 과정

대상: 수도자 및 평신도 (만 18세 이상)

내용: 가톨릭 신학 전반 26과목

접수: 11/10(월)~2026년 2/20(금)

문의: 02-745-8339, ci.catholic.or.kr

성가발성 노래교실

CPBC <다함께 성가를> 이호중 교수 직강

시스띠나음악원: 일산(금) 11시

문의: 010-9842-8818

서강대 영성특강 – 나의 신앙일지

일시: 11/17(월) 14시~16시 (미사, 강의 무료)

장소: 서강대학교 이냐시오 소강당

주제: 전례와 성인의 통공 – 천상의 전례와 지상의 전례

강사: 구정모 신부 (예수회)

문의: 02-705-4711

2026 화요일아침예술학교 신입생 모집

모집: 여학생 13명 (미술계열 1학급)

자격: 미술에 열정과 꿈이 있는 중학교 졸업예정자

(검정고시 합격자)

접수: 11/10(월)~12/5(금)

문의: 070-8891-3831 교무실

031-832-9988 행정실

www.flowerdaymorning.com

가톨릭 성음악아카데미 겨울학기 모집

대상: 연령 무관, 초급~최고급 과정까지

과목: 오르간·피아노·반주·성악·합창지휘·작곡·

CCM·관악기·현악기·바로크악기·국악·

양상블(그레고리오성가·성악·플루트·현악·

목관·리코더·클래식기타) 등

장소: 최양업홀 (1·4호선 서울역, 2·5호선 충정로역)

접수: 11/3(금)~21(금)

과정: 3개월 수업 (12월~2월)

문의: 02-393-2213, www.casm.co.kr

주교회의 생명윤리위원회 제25차 정기 학술 세미나

일시: 11/15(토) 14시

장소: 수원교구 제2대리구청 4층 강당

주제: AI 과학 기술과 생명

문의: 02-460-7623 주교회의 생명윤리위원회

의정부성모병원 자원봉사자 모집

대상: 65세 이하 심신이 건강한 성인 남녀

내용: 평일 주 1회 2시간 봉사 (오전·오후 선택)

문의: 031-820-3473 자원봉사자실

010-7595-7365

서강대학교 신학대학원(주간) 신입생 모집

신학: 신앙과 삶이 하나되는 통합적 신학과 함께 걸어가는 신학 추구

철학/영성·철학상담: '삶으로서의 철학함'을 통해

삶의 문제 해결과 고통받는 인간 치유

가톨릭사회복지학/사회복지학: 사회문제에 적극 개입하여 실천적 대안 모색

접수: 11/19(수)~28(금)

전형: 12/13(토) / 문의: 02-705-8668~9



안내 · 기타 ►►

수원가톨릭신학대학교 갓등중창단 OB 콘서트

교회공동체의 복음화를 위한 찬양콘서트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일시: 11/19(수) 19:30

장소: 호평동 성당 (무료)



라파엘여행사 해외 성지순례

1/13(화), 1/19(월) 나가사키 (4일, 155만원)

1/16(금), 2/6(금) 중국 상해 (4일, 119만원)

1/19(월), 2/22(주일) 튀르키예, 그리스

(12일, 489만원)

1/19(월) 이스라엘, 이집트, 요르단 (13일, 549만원)

2/14(토) 구정특선 – 남인도 성지 (7일, 399만원)

3/11(수) 유럽 성모발현지 (10일, 475만원, KE)

3/23(월) 폴란드, 체코 (9일, 395만원)

4/7(화), 4/8(수) 이탈리아 일주 (9일, 직항)

4/10(금) 산티아고순례길 150km (13일, 590만원, KE)

문의: 02-778-8565 라파엘 여행사

다 함께하는 감사와 힐링의 가을 천사 음악회

자전거 탄 풍경 및 유럽 수학한 성악가 외

성가, 가곡, 팝송, 포크송, 트로트 등

일시: 11/16(주일) 14시 (90분)

장소: 호원동성당 대성전 (무료)

문의: 010-8879-3055 (누구나 환영)

가톨릭여행사 해외 성지순례

1/20(화) 유럽 4개국 성모 3대 발현지 (12일)

2/2(월) 이탈리아 일주 (11일, 535만원)

2/3(화) 일본 나가사키 (4일, 155만원)

3/17(화) 산티아고 도보 순례 117km (12일)

4/6(월) 스페인, 포르투갈, 루르드 (13일)

4/13(월) 멕시코 과달루페, 페루 (12일)

문의: 010-5235-3533 가톨릭회관619호

www.catholictravel.co.kr

천주교 서울대교구 카프성모병원

알코올전문병원, 중독증점 (도박, 인터넷게임)

우울, 불안, 수면 장애 등 정신의학과 입원 및 외래 통원치료

진료: 월~금, 09시~17시

장소: 고양시 백석역(3호선) 7번 출구 5분 거리

문의: 031-810-9200, www.karf.co.kr

꼬메스심리상담소 – 도미니코 수도회

상담을 통한 치유와 성장이 있는 따듯한 동행

내용: 가족, 부부, 갈등, 심리, 영적성장

방법: 대면, 온라인, 전화 (모두 가능)

문의: 010-9916-5798 노경덕 신부

늘푸른 자활의집 – 무료 주거형 치료공동체

저소득층 알코올, 도박, 컴퓨터 중독치료

대상: 성인 남성 / 그리스도수도회 운영

문의: 031-953-3492,

<https://blog.naver.com/ggreen1004>

베트남 성모발현 성지순례

12/8(월) 베트남 라방 성모발현성지 (5일)

아시아나 항공, 지도사제 동행

문의: 010-5909-5997 성심여행사

그리스도의 레지오 수도회 성지순례 – 14박15일

이집트, 이스라엘, 요르단 (1월 말)

주관: 그리스도의 레지오 수도회

문의: 010-5735-4578

산티아고 순례길 800KM – 42일

3/28(토) / 회비: 599만원 (+2,200유로)

가톨릭 트래블 – 루르드, 파티마 순례포함

문의: 070-4086-0207, catravel.co.kr

예수회 후원회 성지순례

12/4(목) 베트남 다낭 (5일, 155만원)

2/14(토) 나가사키 (4일, 169만원) – 구정연휴

2/23(월) 이스라엘, 요르단 (12일, 550만원)

3/10(화) 베트남 다낭 (5일, 160만원)

3/24(화) 튀르키예, 그리스 (12일, 480만원)

5/12(화) 스페인, 루르드, 파티마 (12일, 590만원)

문의: 02-722-8366 크로바여행사

천주교의정부교구

카카오톡 채널



성 소 모 임	수도회명	일시	장소	문 의
	예수회	11/22(토) 15시	예수회 관구본부 (서울 마포구)	010-2876-1540, vocation@jesuit.kr

라테라노 대성전 봉헌 축일

오늘 11월 9일은 라테라노 대성전 봉헌 축일입니다. 어쩌면 사람이 아닌 성당을 기념하는 일이 흔치 않은 데에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성 베드로 대성당이 아닌 라테라노 대성당의 봉헌 축일을 지내는 것이 낯설 수 있습니다. 오늘은 라테라노 대성당의 역사와 그 봉헌 축일을 지내는 이유를 알아봅니다.

라테라노 대성당 중앙 입구에는 “전 세계와 로마의 모든 교회의 어머니요 머리”라는 라틴어 문구가 새겨져 있습니다. 라테라노 대성당은 로마 교구의 주교좌 성당으로서 로마에 있는 최초의 바실리카 양식 대성당이고, 전 세계 교회의 어머니(母) 교회입니다. 새로 선출된 교황은 교황 취임식 이후, 규정된 예식에 따라 라테라노 대성당에서 로마 교구장에 착좌합니다.



313년 콘스탄티누스 대제(272~337년)는 밀라노 칙령을 통해 그리스도교에 종교 자유를 승인하면서 성 밀티아데스 교황(311~314년 재위)에게 라테라노 궁전을 선사하였습니다. 그리고 후임자 성 실베스테르 1세 교황(314~335년 재위)은 궁전 옆에 라테라노 대성당을 건축하여 324년에 봉헌하였습니다. 이후, 898년 지진이 발생하여 성당이 붕괴되었는데, 교황 세르지오 3세(904~911년 재위)는 성당을 재건하여 905년 성 요한 세례자에게 봉헌하였습니다. 그리고 교황 루치오 2세(1144~1145년 재위)는 1144년 다시 성 요한 사도에게 봉헌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성당의 공식 명칭은 “라테라노의 지극히 거룩하신 구세주와 성 요한 세례자와 성 요한 복음사가 대성당”(Archibasilica Sanctissimi Salvatoris et Sancti Iohannes Baptista et Evangelista in Laterano)입니다.

라테라노 대성당은 1309년 교황청이 프랑스 아비뇽으로 옮겨 가기 전까지 약 1000년간 사도좌가 자리했던 성당입니다. 1377년 교황이 다시 로마로 돌아오는데, 이때 화재로 황폐해진 라테라노 대성당 대신 바티칸으로 거처를 옮기게 됩니다. 라테라노 대성당 봉헌 축일은 12세기에 도입되어 처음에는 로마에서만 기념되었으나, 후날 교황 베네딕토 13세(1724~1730년 재위)가 이를 보편 교회의 축일로 지내게 하였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성령께서 거쳐하시는 성전(聖殿)입니다. 우리는 영적 짐을 짓는 데 쓰이는 “살아 있는 돌”(1베드 2,5)이고, “사도들과 예언자들의 기도 위에 세워진 건물”(에페 2,20)입니다. 우리 각자가 주님의 성전이기에, 모든 교회의 어머니 교회인 라테라노 대성당은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고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께서는 2023년 11월 8일 수요일 일반알현 훈화에서 “라테라노 대성당 봉헌 축일은 바로 주님을 섬기는 살아 있는 돌이 되고자 하는 열정을 불러일으키는 날”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축일은 전 세계 가톨릭교회가 하나로 일치되어 있음을 드러내며, 우리 안에 일치의 성령께서 활동하고 계시다는 점을 깨우쳐 줍니다. ☺



천주교의정부교구 성모순례지 행주성당

<http://sd.uca.or.kr/hjsd1909>

우 10440 경기 고양시 덕양구 행주산성로144번길 50

성모봉소승진

주 임 신 부 : 홍유선 임마누엘
연 령 회 : 박 베드로 (010-6205-7458)
사 무 실 : Tel. 031-974-1728
Fax. 031-972-8537

주일미사		평일미사		성사 및 면담		
토요일	17:00	월, 화, 수, 목, 금	11:00	고해성사	매 미사 20분 전	
주 일	09:00			병자영성체	매월 첫 목요일 미사 후	
	11:00			유아세례		
성 시 간	매월 첫 금요일 15:00	단체 순례객 미사 신청		축복예식	상시, 사무실 문의	
성모신심	매월 첫 토요일 11:00	사무실 문의		사제면담		

행주성당은 로마 성모대성전과
특별 영적 유대로 결합된 성모순례지성당입니다.

행주성당 전대사를 위한 통상적 조건

1. 고해성사, 영성체, 교황님의 지향에 따른
기도를 바친다.
2. 행주성당에서 거행되는 거룩한 예식에
경건하게 참여한다.
3. 주님의 기도와 신경을 바친다.

공지 / 단체

● 첫영성체

신현우 파우스토, 박준우 요한 보스코
남윤재 가브리엘, 백혜린 플로라
조이준 펠릭스

위 어린이들이 오늘 11월 9일 주일 교종 미사 중에
첫영성체를 합니다. 행주 성당 첫영성체 어린이들을
위해 기도중에 기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1월 사목협의회의

일 시: 11월 16일 오전 11시 교종 미사 후

● 평신도 주일 2차 현금

오늘은 평신도 주일 2차 현금이 있습니다.

● 남성 · 여성 레지오 단원 모집

남성 회합 시간: 매주 토요일 오전 9시
여성 회합 시간: 매주 월요일 오전 9시 10분
본당 남성과 여성 레지오 단원을 모집합니다. 관심
이 있으신 분은 본당 사무실로 문의, 연락 바랍니다.

● 교종미사 주송자, 예물봉헌 담당

11월 9일	주송자	신은석 안젤라
	이영자 세실리아, 구미경 리베라따	
11월 16일	주송자	전옥자 수산나
	고백주 안토니오, 허경옥 도로테아	

우리들의 정성(10/27 - 11/2)

● 교무금, 주일헌금

교 무 금	8건	580,000원
주 일 헌 금		990,000원

● 감사헌금

이정순 마리아	100,000원
---------	----------

교무금, 감사헌금	농협 217013-51-118905 (재)천주교의정부교구유지재단
-----------	--

계좌 입금시 책정자의 이름으로 하시고 입금 후
본당 사무실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 2025년 교무금 책정세대

교무금이란 교회 유지를 위해 신자들이 의무적으로
교회에 내는 봉헌금이며, 수입의 일정액을 매월 의
무적으로 바치는 것을 말합니다.

십일조는 하느님의 제단에 바치는 선물이며, 받은
은총에 대해 감사하는 거룩한 의무입니다.

개인이 아니라 가정을 단위로 책정하여 매월 정기
적으로 납부하는 것입니다.

행주 성당 총 세대수: 77세대

교무금 책정 납부 세대: 51세대(책정율 66.23%)

- 금주의 복음 말씀 -

예수님께서 성전이라고 하신 것은
당신 몸을 두고 하신 말씀이었다.

화답송

후렴) 강물이 즐기즐기
하느님의 도성 을,
지극히 높으신 분의
거룩한 거처를 즐겁게 하 - 네.